

손흥민, 첼시 두 번 울리려나

리그 첫골 상대와 내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최근 6경기 7골 5도움 공격포인트 12개 맹활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홉스퍼)이 리그 첫 골의 상대인 첼시와 다시 격돌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9일(한국시간) 오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런던 라이벌인 첼시와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 1차전을 치른다.
관심은 역시 손흥민의 활약에 모아진다. 최근 6경기에서 7골 5도움

을 올리며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아스널과 리그컵 경기서 골을 터뜨린 이후 6경기서 7골 5도움 공격포인트 12개다. 같은 기간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이다.
직전 경기인 5일 잉글랜드 FA컵 트란미어 로버스와 경기에도 선발 출장해 1골 2도움을 올렸다.
이번 상대가 손흥민이 좋은 기억을 가진 첼시라는 점도 눈길을 끈

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25일 첼시를 상대로 이번 시즌 리그 마수결이 골을 터뜨렸다.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환상적이었다. 후반 9분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이후 단독 드리블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 조르지뉴를 제쳤다. 앞에서 수비하던 데이비드 루이스도 상체 움직임으로 벗겨낸 후 페널티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다.

이 골은 EPL 사무국이 선정한 '이달의 골'에 선정될 정도로 완벽했다.

동시에 부활의 서막을 알린 골이기도 했다. 손흥민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에 연속 차출되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A매치 기간에 휴식을 취한 후 이 경기서 골맛을 보며 본격적인 골 페레이드에 시동을 걸었다. 이 경기 이후 퇴장당한 그는 12월 리그에서만 6골 3도움으로 필필 날았다. 다시 만난 첼시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한편 카라바오컵은 홈&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1·2차전 합계 성적으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 토트넘이 첼시와 승리한다면 맨체스터 시티와 버턴 알바온(리그, 3부리그)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뉴시스

토트넘 선배 크라우치 "손흥민, 아시안컵 가면 그리울 것"

유소년 출신으로 애정 남달라...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올린 후배에 감탄

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의 장신 공격수로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크라우치(38·스토크 시티)가 손흥민(27·토트넘 홉스퍼)에게 찬사를 보냈다.

크라우치는 6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번주에 내 눈을 사로잡은 인물'로 손흥민을 꼽았다.

크라우치는 '나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즐기고 있다'면서 '그는 텔레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처럼 토트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되어가는 중이다. 대단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칭찬했다.

이어 손흥민이 이달 중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으로 떠나게 되면 무척 그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우치는 토트넘 유소년 클럽 출신으로 애정이 남다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유소년 팀에 몸담았고 이후 프로 계약까지 맺었다. 당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났지만 2009~2010시즌 토트넘으로 돌아와 두 시즌 간 활약했다.

스토크시티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매주 이 매체에 자신이 작성한 칼럼을 실고 있다. '선배'의 눈에 들 정도로 손흥민은 최근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컵을 포함한 6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7골 5도움으로

같은 기간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한 시점에서 총 12골 8도움으로 2016~2017시즌 이후 세 시즌 연속 20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손흥민은 9일 첼시와 카라바오컵(리그컵) 1차전을 치른 후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경기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다.

이후 곧바로 아랍에미리트 연방(UAE)로 출국, 파올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이 다음달 1일 열리는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손흥민은 최대 4경기를 거른다.

지리산관광지매장주경판대출판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KIA, 코칭스태프 구성완료...야수 김민호·투수 강상수 총괄

지난시즌 끝 은퇴한 정성훈·곽정철 지도자로



KIA타이거즈가 7일 2019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KIA는 수석코치직 대신 야수와 투수 파트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하고, 퓨처스 선수단 산하에 육성·잔류·재활 파트를 나눠 선수 상황에 맞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군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 코우조·홍세완 타격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김종국 주루 코치, 이대진·서재용 투수 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 코우조·홍세완 타격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김종국 주루 코치, 이대진·서재용 투수 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퓨처스팀은 박흥식 감독과 김진진·정성훈 타격코치, 류택현·곽정철 투수 코치, 김성규·김창희 작전·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김지훈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김지훈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KIA는 기존 3군과 재활군을 육성·잔류·재활 파트로 세분화해 선수들의 몸 상태와 수준에 맞춘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육성군은 투수 부문과 야수 부문으로 나뉘 운영되며 투수 부문은 앤서니 르루 코치, 야수 부문은 정기창 코치가 맡는다. 잔류군은 양일환 투수 코치와 장태수 야수 코치가 지도하고, 재활군은 김정수 코치가 맡는다.

KIA는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와 류택현, 양일환, 장태수, 정기창, 앤서니 르루 코치를 영입했다. 지난해까지 스카우트팀에서 근무하던 박기남 스카우트는 퓨처스리그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된 정성훈과 곽정철도 지도자로 인생 제2막을 열게 됐다.

전남드래곤즈 유스출신 신인 선수 3명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우선 지명 선수 중 U-23 청소년 대표 경력을 가진 중앙대 추정호 선수, 2018 대학선발 대표 및 2016 U-20 대표 경력을 가진 한남대 김진성 선수, 2017 U-17 대표로 아시아선수권에 참가했던 광양제철고 김민혁 선수를 영입했다.

2018 U-23 대표 및 2018 대학선

가 촉망되는 전남의 기대주이다.

2018 대학선발 대표와 2016 U-20 대표를 거친 김진성 선수는 중앙수비수로 적극적인 밀착 수비와 안정적인 수비 리딩이 탁월하며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바로 포로에 입단하는 김민혁 선수는 좌측면 수비수로 2016 U-17 대표에 선발되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공격 가담 시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대인마크가 뛰어나며 크로싱과 순간 돌파력이 좋은 전남의 좌측을 책임질 차세대 유망주이다.

새롭게 전남에 입단한 유스 출신 신인선수들은 '항상 꿈에 그리던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기쁘다. 포로'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첫 출발인 만큼 열심히 하겠다. 전남 유스 출신 선배들처럼 팀에 주축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정호 선수는 2017년 중앙대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끌며 득점상 수상, 2018년 추계대학연맹전에서는 준우승으로 우수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장래

가 촉망되는 전남의 기대주이다. 2018 대학선발 대표와 2016 U-20 대표를 거친 김진성 선수는 중앙수비수로 적극적인 밀착 수비와 안정적인 수비 리딩이 탁월하며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바로 포로에 입단하는 김민혁 선수는 좌측면 수비수로 2016 U-17 대표에 선발되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공격 가담 시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대인마크가 뛰어나며 크로싱과 순간 돌파력이 좋은 전남의 좌측을 책임질 차세대 유망주이다.

새롭게 전남에 입단한 유스 출신 신인선수들은 '항상 꿈에 그리던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기쁘다. 포로'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첫 출발인 만큼 열심히 하겠다. 전남 유스 출신 선배들처럼 팀에 주축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인도에 대패' 태국, 아시안컵 첫 경기 직후 감독 경질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첫 경기서 대패를 당한 태국이 곧바로 감독을 경질했다.

태국축구협회는 7일(한국시간) 습웃 품판무앙 회장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세르비아 출신의 밀로반 라예비치 감독을 경질한다고 전격 발

표했다.

태국은 전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나얀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A조 1차전에서 인도에 1-4로 졌다.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2018 스즈키컵에서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와 준



결승서 1·2차전 합계 2-2로 비겼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탈락했다. 대회 3연패 도전 또한 실패했다.

2017년부터 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라예비치 감독은 2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장세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